



채소 생육 데이터센터 지점 현판식

22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이상기상연구동을 채소 생육데이터센터로 지정하는 현판식이 열렸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우수 식량작물 '한눈에'

농진청, 품종 비교 전시포 11월 초순까지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수한 식량작물 품종을 한눈에 비교 관찰하고, 지역별 품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식량작물 품종 비교 전시포'를 이달부터 11월 초순까지 운영한다.

벼 품종 전시포에는 쌀가루 전용 품종 '가부미2호'를 비롯한 특수미 20종과 밥쌀용 품종 31종, 시대별로 많이 심은 품종 22종 등 총 73품종의 벼를 심어 생육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밭작물 전시포에서는 땅콩, 옥수수, 참깨, 고구마, 수수 등 밭작물 13종 82품종을 심어 다양한 밭작물의

고유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기계수확이 쉬운 품종,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품종, 내병성 또는 조숙성을 갖춘 품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육성된 품종도 확인할 수 있다.

원주군 국립식량과학원 내 위치한 식량작물 전시포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117개 단체, 총 5,400명이 방문했다.

방문객은 지역별 품종에 대한 설명과 기상 여건에 맞는 적합한 품종 추천이 도움이 되었으며, 전시포에서 직접 품종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점이 유익했다고 답했다. 견학 인솔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8%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견학 신청은 농업인 및 관련 단체 대표나 농업기술센터 인솔 공무원이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에서 하면 된다. 방문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1주 전에는 신청해야 하며, 일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 견학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견학을 진행한다.

발열 증상(37.5°C 이상)이 있거나 호흡기 관련 유증상자는 견학을 제한하므로 출발 전 미리 발열 등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준용 과장은 "품종 비교 전시포는 여러 식량작물과 기술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견학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스마트공장 도입 중기 10명 중 9명 "빅데이터 분석 도입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혁신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259개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공장 제조 데이터 활용 실태 및 분석 수요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스마트공장 내 제조 데이터 수집 비중은 △각종 센서 장비·시스템을 통한 자동 수집 43.3% △바코드, PDA, 터치스크린 등 데이터 직접 입력 39.1% △업무 일지·Excel 등 수기 작성 17.3% △기타 0.4%로 절반에 가까운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갖춰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 데이터는 △실시간 모니터링 69.5% △수요예측·불량 등 원인 분석 42.9% △고객사가 요구하는 공정 품질 분석 자료 34.7%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해, 스마트공장의 데이터가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러한 제조 데이터의 활용 제고를 위해 응답 중소기업의 88.8%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도입이 필요하다

고 응답했으며, 이를 통해 △불량률 감소 66.5% △원가 절감 62.2% △생산량 증대 50.0% △수요예측 32.6%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주요 과제로 △제조 데이터 자동 수집 체계 확충 43.2%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 주체 39.8% △업종 전문가·컨설턴트 확보 37.1% 등을 꼽았다. 또한 57.2%의 응답 기업이 AI·빅데이터 등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등 정부의 제조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 유휴농지 개발·임대 추진

농어촌공 전북본부 "청년들 영농정착 큰 도움 기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장 구길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 전주원주임대사업부(지사장 이종화)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김동현)일행과 함께 22일, 전국에서도 모범적·효율적으로 유휴농지 개발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군 경천면 가천리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유휴농지 개발 및 임대 시범사업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유휴농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년농업인의 농지 맞춤형 농지수요와 농지은행사업 대상농지 공급부족으로 청년창업농의농지확보 등 영농정착에 애로를 해소하고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각 시군에 방치된 유휴농지를 조사·발굴해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도록 충분한 토론과 향후 영농계획을 참고해 청년창업농의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농지'로 정비해 이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유휴농지를 17필지(3.75ha)를 발굴해 추진중이며, 확보된 유휴농지는 생산성 있는 농지로

복원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지원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지 보전과 영농소득 다변화,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유휴농지 복구임대사업 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는 청년창업농 흥승우씨는 "그간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복구·맞춤형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청년창업농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1석2조다"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강환 본부장은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농이 영농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휴농지 복원을 통한 농지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휴농지 공급에 대한 자세한 상담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인근 해당지사(☎ 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love.or.kr)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원주 경천면 가천리 유휴농지 개발 전(왼쪽)과 개발 후(오른쪽)의 모습.

# 내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공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특징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 우대 지원 △전통시장도 비대면 배달 플랫폼구축 비용 지원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 및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신청 자격 완화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시 이해관계자 동의서 필수 제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신청·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 간소화 등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에 대한 중점 기조는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간편결제' 확산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면서 "전북중기청은 다수의 지역 전통시장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하는 등 노력하고, 어려운 전통시장에 활력 불어넣기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원 공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상인들의 열정과 창의력도 발휘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지원 실시

도공 전북본부 전북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권혁)는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함께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안전운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실시한다.

2019년부터 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전북본부는 올해 103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말기 비용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도청, 단말기 제조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번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단말기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한 본인 확인용 지문 인식 기능이 포함되었다.

단말기 지원대상은 전북도내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서 고속도로 할인카드(통합복지카드) 소지자이며, 기존 간편단말기 지원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량등록증과 통행료 할인카드(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하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관할하는 34개 영업소(톨게이트에 방문하거나 전화(1899-6804)신청으로도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권혁 전북본부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간편단말기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이며,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aT, 농식품 사회적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분야 사회적기업의 해외관로 개척을 위해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를 종합지원하는 경기사회적기업 종합상사(대표 박진범)에서 수출상담회를 준비하고, aT 호치민지사에서 베트남지역 바이어를 섭외하면서 성사됐다. 베트남지역의 한국 농식품 최대 수입유통업체인 K-Market과 온라인몰 YES24 등을 대상으로 음료, 홍삼, 참기름, 김, 즉류 등 국내 15개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며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사전에 바이어 관심품목을 선정하고, 샘플 상품을 현지로 송부해 상담을 추진한 결과, 오미자 음료와 쌀가공품 등은 시범 수출과 함께 본격적인 수출을 위해 추가 협의사항을 진행하는데 합의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